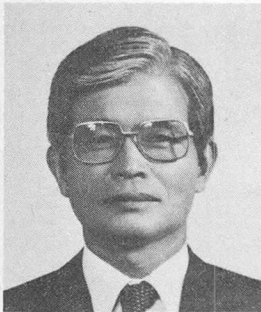


내일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전 남 수  
((주)우성사료  
대표이사)

우리나라 양돈업 발달 과정에서 기술 정보, 질병, 가격안정면에서 견인 차적 역할을 해온 「월간양돈」이 창간 7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찬사와 함께 축하를 보낸다.

세계의 돼지 사육두수 증가속도는 인구증가 추세보다도 높으며, 2000년 때에는 현재의 소비증가 추세로 보아 두 배의 사육두수가 된다고 하는 학자가 있다. (Wilson, G. Pond)

세계를 식육문화권으로 분류하면 중국과 유럽의 게르만민족,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돈육문화권으로 돈육 소비 인구가 양고기·생선의 소비인구보다 더 많다.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돈육이 쇠고기나 닭고기보다도 가공특성이 좋아 가공제품도 다양하며, 쇠고기나 닭고기의 소비를 대체하고 있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요인도 있다.

반면, 그동안 품종의 개량과 함께 양돈 사양기술의 발달로 지육율도 높아지고 도축율(연간 도축두수를 사육두수로 나눈것)이 1.4~1.8에 달하고 있으나, 0.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이들 나라의 도축율이 향상됨에 따라 감소 요인도 있긴 하지만 이들 나라의 돈육소비 증가로 상쇄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육류 소비가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고, 또 화란, 덴마크, 벨기에, 영국등 선진 축산국의 조건과 같이 국토가 좁고 사료곡물 생산이나 조사료 생산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발전지표와 육류 수급 계획을 볼때, 우리 양돈업계의 금후 전망은 밝다고 보아 마땅하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돈육 소비국인 일본과 인접해 있으므로 좋은 수출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다행히도 종돈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미국을 비롯한 스웨덴, 영국, 덴마크 등지에서 우량 종돈의 수입이 활발하고, 국내에서도 종돈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품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양기술이나 생산성, 사료효율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특유의 품종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알맞는 돈사도 찾아볼 수 없고, 돈육을 수출하려 해도 상품이 규격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장기 공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돈의 효율면에서는 하이브리드돈이 좋다고는 하나 G. P를 수입하다보면 영영 G. P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또 선진 외국의 돈사라고 무턱대고 그 형태를 모방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게 수정되지도 않은 채 영국의 형태, 일본의 형태, 화란의 형태들의 전시장이 될지도 모른다.